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노후대비 금융상품

강창희 소장의 '투자 사랑방'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상품이란, 운용의 결과를 금융기관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말한다. 은행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금용도로 볼 때 단기간에 써야할 자금, 원금이 깨져서는 안되는 자금은 저축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

반면에, 투자상품은, 잘하면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변액연금,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만으로도 노후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대의 금리 수준이 계속되고 있어서 웬만한 인플레이션은 방어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4%수준으로 낮아졌다. 인플레이션 또한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물가안정 시대가 계속되어 왔다. 그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 살포된 자금이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 3%의 인플레이션이 25년간 계속된다면 원금 100만 원의 가치는 약 48만 원, 즉 절반 이하의 가치로 줄어든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저축상품, 즉, 예금 등에 가입을 해서 노후에 대비해 왔는데 돈가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후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지겠는가? 따라서, 자산의 일부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에 운용을 해서 저금리·인플레이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노후대비 금융상품 중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속하는 적립식 펀드, DC형(투자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펀드, 변액유니버설 등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기본은 펀드이다.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것이다. 펀드와 연금, 펀드와 보험, 그리고 적립식 투자가 결합된 상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노후자금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 투자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함과 동시에 적립식 투자 바구니에 담을 우량펀드를 고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리 원칙을 지켜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펀드가 불량 펀드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펀드이든, 연금보험이든 다음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본이 되는 펀드가 우량펀드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그 펀드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펀드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들어, 각종 파생상품을 이용한 관계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가 많이 출시되고 있다. 00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 는 말만 듣고 전문가조차도 내용을 알 수 없는 펀드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도 많다. 그래서 안된다. 내용을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 일반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펀드 운용회사의 평판이다.** 펀드투자를 할 경우, 은행, 증권, 보험사, 농협에 가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펀드를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펀드의 운용성적은 이들 판매회사가 아닌 00투신 운용사, 00자산운용사와 같은 운용회사의 실적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판매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펀드를 생각없이 매입할게 아니라 어떤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운용사의 이름과 외부의 평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과거 3~4년간의 운용성적이다.** 과거의 운용성적이 미래의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성적이 좋은 펀드가 미래에도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성적을 참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간의 운용성적을 발표하고, 그 기간에 1등을 한 펀드에 투자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6개월, 1년의 단기 성적은 운에 의해서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의 장기운용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용성적은 꼭 1등이 아니라도 좋다. 꾸준히 중상 이상의 성적을 내는 펀드가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펀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에서 펀드투자를 하면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투자자는 100명중 1명이 될지 말지이다. 특히 주식형펀드 투자자 중에는 주가만 오르면 1~2%의 수수료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펀드를 매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수수료율이다.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투자를 하면 약간의 수수료율 차이도 전체 운용성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용 수익률 보다도 확정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우량펀드 선별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펀드 운용회사의 평판이다. 노후대비 장기투자의 성공 열쇠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으나, 없느냐,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실력있는 펀드 운용사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안목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력있는 운용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펀드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판매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한다.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를 판 자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보관은행으로 보낸다. 보관은행에 보내진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라는 이름을 가진 운용회사의 역할이다.

펀드 운용회사에 경영 파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가 낸 투자자금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들이 낸 자금과 그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를 대신해 보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해주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안전성보다는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운용능력이다.** 운용회사가 내용이 불량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되면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용회사의 능력 가운데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펀드 운용사의 과거 운용 성적표이다. 이때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는 6개월, 1년의 단기 성적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최소한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의 성적표를 보고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운용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 비교 자료를 보면, 1년 성적 상위랭킹에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운용사의 펀드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용기간이 2년, 3년으로 장기화되면 세계적인 운용사들의 펀드 수가 늘어가고, 5년쯤 되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실력있는 운용사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좋은 운용성적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운용을 스타급 펀드매니저의 기량에 100% 의존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운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냈다 하더라도 스타 펀드매니저가 회사를 떠나버리면 그 후의 운용성적은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회사는 일관성 있는 운용철학과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운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용회사 경영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경영자나 펀드 매니저가 수시로 바뀌는 회사에서는 운용철학과 운용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용회사들이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보다는 규모는 작더라도 독립된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일반 투자자가 운용회사의 운용철학이나 운용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파이낸셜 플래너, 즉, 금융상품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